

특집논문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Animal Geographies for More-than-human Geographies in and of Korea

최명애**

반려동물 사육 인구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대중적·정책적 관심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동물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동물에 대한 '침묵'은 동물지리학이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영미 지리학계의 상황과 대조된다. 지난 20여 년간 동물지리학자들은 비인간 동물의 행위성(agency)과 인간-동물의 감응적(affective)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동물지리학을 인간 너머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의 이론적·경험적 프론티어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동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번성(flourishing)케 할 것을 요구하는 혁신적 인간-동물 관계를 모색해 왔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동물 학대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현실 동물 해방 운동의 입장과 구분된다. 이 논문은 한국 인문지리학 연구의 지평을 인간-동물 관계로 확장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영미 동물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영미 인문지리학에서 출현한 '새로운' 동물지리학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영미 동물지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주요 이론적 접근법(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 관계적 접근, 생명정치적 접근)을 대표 연구 성과와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미 동물지리학 연구의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본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6492).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박사후 연구원(myungae.choi@gmail.com)

주요어: 동물지리학, 인간 너머의 지리학, 생명정치, 자연-사회 관계, 동물복지

1. 서론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인구의 21.8%인 457만 가구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신호경, 2017). 2012년 9000억 원이던 반려동물 시장 또한 2015년 1조 8000억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육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가 2012년 닭을 시작으로 도입돼 2016년 돼지로 확장됐고, 전시 공연용 동물의 학대를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돼 지난해 5월 발효됐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동물병원 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최우리, 2017).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 잦아지면서 방역과 살처분은 축산 농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도심 외곽에서는 ‘야생화’된 개가 늘어나면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남종영, 2017; 서울시·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7). 이처럼 동물은 일상의 동반자로, 동물 복지의 대상으로, 안전의 위협으로 도처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의 한국 사회는 이른 바 “동물 전환(the animals turn)”(Wheeler and Williams, 2012)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동물에 대한 대중적·정책적 관심과 대조적으로, 국내 지리학 연구에서 동물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인문사회적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¹⁾ 한국 지리학의 동물 연구는 서식지 분포를 밝히는

자연지리 연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간-동물 관계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을 탐색하는 인문지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예로 Nam 2014; Choi 2017). 이 같은 동물에 대한 ‘침묵’은 동물지리학이 인문지리학의 하위 학제로 자리 잡은 영미 지리학계의 상황과 대비된다. 영미 동물지리학은 1990년대 중반 동물복지 운동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변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에 대한 재고찰과 같은 학술적 변화 속에서 출현했다. 아감벤 등의 철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 온 전통적 범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Agamben, 2004; Calarco, 2008; Derrida, 2008), 동물행동학자들을 중심으로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사회적 존재임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졌다(Bekoff, 2002). 특히 지리학 내부에서 자연-사회, 정신-육체와 같은 전통적 이분법에 도전하는 인간 너머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²⁾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인간과 동물을 대척적 존재로 상정해 온 기존의 인간-동물 이분법이 비판적 연구 대상으로 부상했다(Whatmore, 2002; Hinchliffe, 2007; Lorimer, 2015). 이 같은 상황에서 출현한 동물지리학은 동물의 존재론적 위치를 재고하고,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함의들을 도출해 왔다(Buller, 2013a).

그렇다면 왜 동물 연구인가? 최근의 ‘동물 전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세계, 즉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로 이해하

1) 국내 학계에서 동물은 대체로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다뤄졌으며,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환경 철학(김명식, 2013; 박창길, 2005)과 법학(윤익준, 2016)에서 동물 윤리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룬 연구가 일부 이뤄져 왔다.

2) More-than-human geography는 지리학 연구에서 비인간 존재를 적극 고려하려는 ‘인간 너머’의 지향과, 문화적 표상 중심 연구를 넘어서려는 ‘인문 너머’의 지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새로운 분야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박경환 외(2015)는 more-than-human을 ‘인문 너머의 지리학’으로, Choi(2016a)는 ‘비인간 지리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간 외 비인간 존재로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동물지리학의 취지를 감안해 ‘인간 너머 지리학’으로 쓰기로 한다.

도록 한다. 이 같은 “인간 너머의 조건(more-than-human condition)”(Asdal et al., 2016)은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구성과 작동을 이해해 온 ‘인간’ 지리학(human geography)의 한계를 시사하고(Buller, 2016a), 동물 및 비인간의 역할에 대한 지리학적, 나아가 사회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인간 너머의 관점에 입각한 동물 연구는, 동물을 인간의 개입이 이뤄지는 수동적 대상으로 여기는 기존의 사고를 지양하고, 이들을 공동 세계의 행위자(agent) 혹은 파트너(partner)로 새롭게 사유하도록 한다. 또, 멸종, 사육, 복지, 위협 등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인간-동물 관계의 이해와 실천을 벗어나, 공동 세계의 구성원으로 동물의 생태와 가능성이 번성(flourishing)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동물 관계를 모색하게 할 것이다(Haraway, 2008; Van Dooren, 2014; Lorimer, 2015).

이 논문은 한국 인문지리학 연구의 지평을 인간-동물 관계로 확장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영미 동물지리학의 동향과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영미 인문지리학에서 출현한 ‘새로운’ 동물지리학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영미 동물지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주요 이론적 접근법(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 관계적 접근, 생명정치적 접근)을 대표 연구 성과와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미 동물지리학 연구의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본다. 결론으로는 동물지리학 연구가 국내 인문지리학의 발전에 갖는 함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2. ‘새로운’ 동물지리학의 출현과 발전

동물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은 19세기 유럽의 지리적 팽창에 기원을 두고 있다(Lorimer and Hodgetts, 2016; Philo and Wilbert, 2000b). 알렉산더 폰 훔볼

트, 엘프리드 윌리스 등 유럽 자연과학자들은 신대륙과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보지 못한 동식물을 발견하고 이들의 서식지를 기록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동식물상의 지리적 분포 연구가 ‘동물’지리학(zoogeographies), 또는 생물지리학(biogeographies)으로 발전했고, 현재도 자연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인문지리적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서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현한다. 미국 지리학자 울치(Wolch)와 이멜(Emel)은 1995년 《인바이어런먼트 앤드 플래닝 D(Environment and Planning D)》에 “브링잉 애니멀스 백 인(Bringing Animals Back In)”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게재하고,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 지리학의 “침묵”을 지적하면서, 공간, 장소, 자연과 같은 인문지리학의 주요 이론적 개념을 인간-동물 연구로 확장하는 “새로운 동물 지리학(new animal geography)”을 제안했다(Wolch and Emel, 1995). 이어 울치(Wolch)와 영국 지리학자 파일로(Phil)는 1998년 《소사이어티 앤드 애니멀스(Society and Animals)》에 동물 특집을 실고, 문화, 종교, 과학과 같은 사회적 실천들이 동물을 반려동물, 멸종위기종, 야수 등 특정한 형태로 규정하는 방식을 다뤘다(Phil and Wolch, 1998). 파일리와 윌버트(Phil and Wilbert, 2000b)는 특히 동물의 공간성을 동물원, 농장, 실험실처럼 인간이 동물의 공간으로 규정한 “동물 공간(animal space)”과, 이 같은 공간적 질서에 협력하거나 저항하는 형태로 동물의 행위자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야수 장소(beastly space)”로 구분한다. 두 특집은 각각 『애니멀 지오그래피스(Animal Geographies)』(Wolch and Emel, 1998), 『동물 공간, 야수 장소(Animal Spaces, Beastly Places)』(Phil and Wilbert, 2000a)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돼 동물지리학의 주요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동물지리학은 지난 20여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문지리학의 하위 학제(sub-discipline)로 자리 잡았다(Emel et al., 2003; Buller, 2013a, 2015, 2016b; Lorimer and Srinivasan, 2013). 초기 연구는 담론, 텍스트, 이미지 등 인간-동물 관계의 문화정치적 측면을 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동물의

행위성, 동물의 존재론적 위치, 인간-동물 생명정치 등으로 다양화됐다. 연구 대상 동물 또한 코끼리, 늑대, 고래 같은 대형 포유류에서 물고기(Bear and Eden, 2011), 곤충(Bingham, 2006; Ginn, 2014), 유전자조작 동물(Davies, 2014), 기생충(Lorimer, 2017), 박테리아(Greenhough, 2012) 등 동물의 존재론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동물로 확장돼 왔다. 미국지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AG)나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 RGS)와 같은 주요 지리학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종종 동물 특집 세션이 열리고 있으며, 동물 연구는 《트랜잭션 오브 디 인스티튜트 오브 브리티시 지오그래퍼스(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인바이어런먼트 앤드 플래닝 디(Environment and Planning D)》, 《지오포럼(Geoforum)》같은 주요 학술지의 단골 주제로 자리 잡았다. 울치와 괴일로 등의 초기 저작에 이어 동물의 장소성(Urbanik, 2012), 생명정치(Asdal et al., 2016), 정치경제(Gillespie and Collard, 2015) 등을 프레임워크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단행본들도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이 같은 인문지리학의 동물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동물에 대해 관이하게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자연지리의 동물지리학은 동물을 생태적·환경적·진화적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동적 결과물(passive result)”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파악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Buller, 2016a: 2). 한편 인문지리의 동물지리학은 동물을 그들이 속한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고, 공간의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active subject)”로 본다(Buller, 2016a: 3). 즉, 동물이 공간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담론적·물질적 생산물이며, 인간이 부여한 질서에 협력하거나 저항함으로써 공간의 변화에 참여하는 비인간 주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물”(Hobson, 2007)임을 강조한다.

동물의 사회적 연결망과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동물지리학의 인간-동물 이해는 여타 인문·사회과학의 인간-동물 연구 및 현실 동물

해방 운동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동물지리학은 인간-동물 관계의 형태와 성격이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 연결망(heterogeneous network)을 통해 생성(emergent)되는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동물 관계의 복잡성, 다양성, 예측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동물지리학자들은 멸종 혹은 보전, 착취 혹은 복지, 살림 혹은 죽임 등의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틀로 인간-동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지양하고, 복수의 관계들이 공존하고 긴장하며 상충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는 데 집중한다. 인간-동물 관계의 비이분법적, 생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 같은 입장은 동물지리학이 인간 너머 지리학의 이론적, 경험적 프론티어로 전개돼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불러(Buller), 힌츨리프(Hinchliffe), 로리머(Lorimer) 등의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 너머 지리학의 대표적 이론가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연-사회 이분법, 비인간 행위성(nonhuman agency), 감응(affect)과 같은 인간 너머 지리학의 주요 개념을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장 동물(Buller, 2013b), 야생동물(Buller, 2008; Lorimer, 2012), 생명안전성(Hinchliffe and Bingham, 2008) 등을 연구해 왔다.

둘째, 동물지리학은 인간-동물 관계의 윤리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려는 규범적 지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물지리학이 지향하는 동물 윤리는 현실 동물 해방 운동과 철학적 근거와 실천 양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물 해방 운동은 동물이 도덕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법,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종식시키고자 한다(Regan, 2004; 싱어, 2012). 한편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을 생태적으로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로 보고, 개별 동물과 개별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윤리적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윤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Haraway, 2008). 이 같은 입장은 인간-동물의 윤리적 관계를 생각하는데 혁신적 통찰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트와인(Twine, 2010) 등의 지적처럼 개별적·추상적 논의에 머무름으로써 현실의 구조적 동물 학대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유용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간 국내 지리학에서 동물은 자연지리학, 특히 GIS 등을 이용해 서식지 분포를 기록하는 연구의 대상으로 주로 다뤄져 왔다(박준규·김민규, 2011; 김아름 외, 2017 등). 동물에 대한 인문지리적 관심은 최근의 현상으로, 몇몇 신진연구자들이 자연-사회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인간-동물 관계의 정치적 측면을 탐색하고 있다. 남종영(Nam, 2014)은 서울대공원의 사육사-돌고래 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담론적·물질적 장치들을 통해 '야생 돌고래'가 '쇼 돌고래'로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는 특히 돌고래가 쇼에 협력하거나 저항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데 주목하고, 돌고래의 행위성이 돌고래 생명정치의 작동과 성격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 다른 고래 연구로 최명애(Choi, 2017)는 장생포 고래 관광의 지리적 연결망과 작동방식을 분석한다(이 논문의 4절을 참고).

한편 지리학 인접 분야인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인간-동물 연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문화인류학회는 2016년과 2017년 연례 학술대회에서 동물 특별 세션을 잇달아 개최하고, 학회지를 통해 길고양이(전의령, 2017), 고래(Tatar, 2017), 반려동물(이용숙, 2017) 등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창경궁 동물원의 설립(서소정, 2014), 조선시대 호랑이 관리 정책(김동진, 2013) 등 역사적 측면에서 인간-동물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사회학 쪽에서는 공장식 축산과 구제역 발병(김민정, 2012), 제주 노루의 담론 분석(장신욱, 2016),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종찬, 2015)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들 연구자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마르크스주의 정치생태학, 행위자-연결망 이론, 생명정치 등 다양한 접근법들을 활용해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가 갖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측면들을 탐색하고 있다.

3. 동물지리학의 주요 접근법

동물지리학은 1990년대 이후 지리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전환(the cultural turn)과 물질적 전환(the material turn)의 자장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푸코, 들뢰즈, 행위자-연결망 이론, 페미니즘, 신유물론,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 과학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폭넓게 흡수해 인간-동물 관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발전시켜 왔다(Buller, 2013a). 이 절에서는 동물지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주요 접근법을 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 관계적 접근, 생명정치적 접근의 세 갈래로 나눠 살펴본다. 각 접근법은 동물의 상이한 측면—표상, 행위자, 정치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례 연구에서 보듯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1) 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

울치 등 초기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이 객관적, 중립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담론적·물질적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동물원(Anderson, 1995; Beardsworth and Bryman, 2001; Rutherford, 2011), 자연사 다큐멘터리(Davies, 2000a; Christophers, 2006), 늑대 퇴치(Emel, 1998; Rutherford, 2013), 원양 어업 규제(Mansfield, 2003; 2006)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동물의 정체성, 동물 공간의 성격, 특정한 동물 관리 방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정당화되는지를 탐색해 왔다.

동물을 사회적 산물로 보는 이 접근법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nature)’과 ‘자연의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 of nature)’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Castree and Braun, 2001; 김숙진, 2010). 두 이론은 상이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동물을 사회의 “표상(figure)”(Lorimer and Srinivasan, 2013: 335)으로, 다시 말해,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과 과정을 드러내는 “메타포”(Buller, 2013)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동물 연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이 동물의 정체성과 공간을 규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민주의, 과학주의, 인종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동물원, 자연사 다큐멘터리, 어업 현장 등은 파일로와 윌버트(Philo and Wilbert, 2000b)가 말하는 '동물 공간', 즉 인간이 규정한 동물의 공간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후기 구조주의, 문화이론, 페미니즘 등에 기반을 두고 텍스트의 문화정치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미지, 영상, 공간 배치, 담론 등 동물의 문화적 재현물(representation)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현물의 정치적 측면과 역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사 다큐멘터리에서 동물들이 선별적으로 캐스팅되고 설명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대영 제국의 지리적 유산을 읽어내고(Christophers, 2008), 자연사 박물관의 분류와 전시 방식을 통해 자연의 서사가 생물학 지식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드러내는 식이다(Rutherford, 2011). 대표적인 예로는 이멜(Emel, 1998)의 20세기 초 미국의 늑대 퇴치 연구가 있다. 이멜은 늑대가 실제 생태적 특성과 무관하게 '잔혹한 야수' 혹은 '겁쟁이'로 구성됐고, 이 같은 늑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담론이 '늑대 박멸'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미국인 남성은 '용감한 사냥꾼' '프론티어의 지킴이'로 새롭게 규정되는데, 늑대의 타자화가 '개척자'라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생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정치생태학에 기반을 두고, 동물이 자본주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적 생산주의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자본의 축적이 동물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가 종내(인간과 인간), 중간(인간과 동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동물이라는 축적 기반을 붕괴하는 모순적 체제임을 드러내고

자 한다(Shukin, 2009; Neves, 2010). 예를 들어 더피와 무어(Duffy and Moore, 2010)는 아시아 코끼리의 독특한 생태와, 코끼리를 길들여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 온 태국 고산족의 역사와 문화가 코끼리 생태관광의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비약탈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관광이 코끼리의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맨스필드(Mansfield, 2006)는 북태평양 대구 어업 규제 연구를 통해 야생동물 멸종을 막기 위해 최근 도입되는 ‘시장 기반 보전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지역별로 대구 조업 쿼터를 설정하고 조업권 거래를 통해 대구 조업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현행 시장 기반 글로벌 대구 관리 방식이 실제 규제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대구 멸종이라는 환경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한 국내 연구로는 김민정(2012)의 구제역 연구 등이 있다. 김민정은 인간-자연 관계를 노동을 통해 서로를 변형해 나가는 ‘물질대사’ 관계로 보는 전형적 마르크스주의 정치생태학 관점을 취한다. 그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노동양식이 인간과 동물을 부정적으로 변형시켜 왔고, 그 결과 발생한 인간-동물 물질대사의 균열로 구제역 발병을 설명한다. 장신옥(2016)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제주 노루 담론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제주 노루의 정체성이 보호해야 할 ‘한라산 명물’에서 포획·퇴치해야 할 ‘유해 동물’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2) 관계적 접근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은 2000년대 이후 인간 너머 지리학의 발전 속에서 전개돼 왔다(Whatmore, 2002; Hinchliffe, 2007).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의 행위성과 인간-동물의 감정적·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너머 지리학의 핵심 개념인 비인간 행위성과 감응 등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왔다. 구성주의 혹은 생산주의적 접근법이 동물을 인간 사회를 탐색하는 개념적 도구로 여긴다면, 물질적 전환(Whatmore, 2006)³⁾의 영향을 받은 관계적 접근법은 동물이 고유한 신체, 생태, 삶의 경험을 가진 “살아있는 동물(the actual animal)”(Haraway, 2008)임에 주목한다. 관계적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동물의 ‘다름(difference)’이 인간-동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이들은 철새(Lorimer, 2008), 들소(Lulka, 2004), 순록(Lorimer, 2006), 고래(Cloke and Perkins, 2005)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동물의 다름이 야생, 도시, 축산업, 생태관광, 경관의 조직과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여기서 농장, 축산 산업, 생태관광은 파일로와 윌버트(Philo and Wilbert, 2000b)가 말하는 ‘야수 장소’로, 인간의 질서에 협력하거나 저항하는 동물의 행위성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동물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행위자-연결망 이론, 포스트휴머니즘, 들뢰즈의 생철학, 페미니스트 과학철학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동물지리학자들은 이질적 연결망에 기입된 비인간은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비인간 행위성 논의를 동물로 가져온다. 이들은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축산, 보전, 방역 등)을 인간, 동물, 사물이 결합하고 작동하는 ‘관계’의 효과로 보고, 이 관계의 주 행위자가 인간만이 아니며, 동물 역시 창조적인 방식으로 관계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즉, 동물을 인간과 함께 공동 세계의 구조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로크와 퍼킨스(Cloke and Perkins, 2005)는 뉴질랜드 카이코라 고래 생태관광에 대한 관계적 분석을 통해 고래의 행위성이 생태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들은 고래 관광을 관광객과 관광산업뿐 아니라 고래와 돌고래, 보트 같은 장비, 고래 관측 기술, 자연

3) 물질적 전환과 관련된 국내 논의로는 김환석(2017), 김숙진(2016)을 참고하라.

보전이나 고래 생태와 같은 담론과 지식 등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관계망으로 보고, 관계망의 수행에 따른 성취물로 고래 관광 경험이 생성된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비인간 행위자인 고래가 관광 현장에 출현하지 않거나, 출현하거나, 인상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고래 관광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고래의 행위성이 고래 생태관광의 결정적 요소로 카이코라의 장소성과 고래 산업을 견인한다는 것이다.⁴⁾ 동물의 외형적, 생태적 특징이 갖는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로리머(Lorimer, 2007)는 “비인간 카리스마(nonhuman charisma)”라는 개념으로 이를 이론화한다. 그는 비인간 카리스마의 예로 판다의 귀여운 얼굴과 독특한 생태를 지적하고, 이 같은 특징이 판다를 세계동물기금(WWF) 야생 보전 캠페인의 플래그십 동물로 활용되게 했고, 대중의 감정선을 자극해 캠페인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관계적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동물 관계를 한 종이 다른 종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 보고, 이 같은 지배관계를 전면적으로 청산(예를 들어 인간에 의한 동물 학대 종식)하려는 동물 해방운동의 입장과 거리를 둔다. 대신, 인간과 동물이 개별 개체 수준에서 서로 협력하고, 긴장하고, 불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인간과 동물의 보다 나은 ‘함께 살기(living well together)’를 위해, 이들은 인간과 구분되는 동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동물의 다름이 공동세계의 구성과 작동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인간-동물 관계의 정치적 혁신을 설명하기 위해, 관계적 동물지리학자들은 과학철학자 스텐저스(Stengers)가 제안하고 라투르가 발전시킨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의 개념을 빌려온다(Latour, 2004; Stengers et al., 2010). 코스모폴리틱스는 세계를 고정된(fixed)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생성(becoming)의 결과물로 보고, 세계를 이해하고 정

4) 유사한 국내 연구로 Nam(2014)을 참고하라.

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비인간 존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원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이나 정치적 결정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생태와 잠재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폴리틱스의 정치학은 도시에서의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도심 동물 연구들에 종종 드러난다(Hinchliffe et al., 2005; Hinchliffe and Whatmore, 2006; Hovorka, 2008; Urbanik and Morgan, 2013). 일반적으로 도시의 동물은 반려동물처럼 집 안에서 사육되거나, 아니면 보건 위협으로 여겨져 제거되거나 '야생'의 자연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둘기, 길 개, 길고양이, 바퀴벌레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사육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채 도시를 서식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도시는 동물이 소거된 공간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 너머의 도시(more-than-human city)”(Braun, 2005), 즉 울치(Wolch, 1998)가 말하는 “주폴리스(zoopolis)”가 된다. 보다 우호적이고 ‘발랄한(convivial)’ 주폴리스를 위해, 울치는 도심 동물들을 개체와 종의 생존을 위해 삶을 꾸려가는 “귀한 이웃”으로 여기고, 도시의 생태를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때, 이 같은 결정이 도시 동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생명정치적 접근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는 16~18세기 서유럽에서 과거 군주의 통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 관리 방식이 출현했다는 데서 출발한다(Foucault, 1978; 2009). 군주의 통치가 사법적 기제를 통해 ‘개인’을 “죽게 하는 것(to take a life)”으로 이뤄졌다면, 근대 자유주의 사회는 다양한 규율 및 조절 기제를 통해 ‘인구’를 “살게 하는 것(to make a life)”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푸코는 특히 다양한 개념적·물질적 장치들을 통해 개인과 인구의 품행을 특정한(살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통치(government)”

의 기술과 통치 이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개념화했다. 로즈(Rose, 2007), 렘케(Lemke, 2011) 등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푸코의 생명권력과 통치성 분석을 신자유주의, 근대 국민 국가, 환경 운동과 같은 새로운 사회 현상의 출현과 작동 방식,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는 도구로 발전시켜 왔다(고든 외, 2014; Agrawal, 2005; Luke, 1999; Rutherford, 2011).⁵⁾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 주체에 집중된 푸코의 논의를 비인간 동물로 확장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생물사회적 집합(biosocial collectives)”이 축산, 보전, 방역 등과 같은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을 통치하고 통치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통치의 정치적 성격을 탐색해왔다(Holloway et al., 2009; Shukin, 2009; Asdal et al., 2016). 이들은 동물을 ‘동물 공간’의 표상이나, ‘야수 장소’의 행위자로 보는 대신, 인간-동물 관계를 “통치의 한 형태(a form of governing)”로 보고, 동물이 통치의 대상이자 통치의 결과로 새롭게 규정되는 ‘정치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들 동물지리학자들은 생명정치를 인간-동물 관계의 작동 방식과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유용한 분석 도구로 주목하고(Asdal et al., 2016), 생명정치를 지배와 배제의 장치로 바라보는 일반적이면서도 협소한 이해를 확장해, 생명정치 분석틀을 다양한 인간-동물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한다. 즉, 특정 생명장치의 모드(예를 들어 유해동물 관리)에서 활용되는 담론적·기술적·물질적 장치(예를 들어 중성화사업)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동물에 대한 지식(예를 들어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의 동물복지를 위한 것)을 검토함으로써, 생명정치가 동물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실천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더퍼드(Rutherford, 2013)는 캐나다 늑대의 생명정치 연구에서, 늑대 목에 현상금을 거는 ‘현상금 제도’ 장치가 늑대를 ‘유해 동

5) 통치성 이론에 관한 리뷰로는 Rabinow and Rose, 2006; Rutherford(2007), 최명애(2016)를 참고하라.

물'로 규정하고, 늑대 사냥을 정당화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야생 늑대의 소리를 듣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다른 형태의 생명정치 장치로, 늑대를 '매혹적인 야생 동물'로 새롭게 규정하고, 늑대 보전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한다. 로리머와 드리센(Lorimer and Driessen, 2013)은 인간-소 생명정치의 다양한 층위를 살펴보고, 축산, 보전, 동물복지, 방역 등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생명정치가 인간-소 관계에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축산의 생명정치는 저렴하고 질 좋은 축산물(우유, 고기 등)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여기서 소는 축산물의 생산자로 규정된다. 한편, 동물복지의 생명정치는 사육 가축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이상적인 소는 (적어도 도살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가 된다. 이들은 이처럼 상이한 모드의 생명정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경합하고 상충하는 방식으로 소를 규정한다는 점을 주목하고(예를 들어 생산자소 vs. 행복한소), 인간-동물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생태적 분쟁을 생명정치의 "마찰(fric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⁶⁾

로리머와 러더퍼드 등은 생명정치를 분석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더 나은 함께 살기의 가능성을 푸코의 생명권력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Hannah, 2011; Lorimer and Driessen, 2013; Rutherford and Rutherford, 2013a; Rutherford and Rutherford, 2013b). 생명권력 논의는 아감벤 등의 정치철학자에 의해 발전하면서 특정 인구 집단을 구별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는 '죽음의 정치'라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왔다(Agamben, 2004). 한편, 최근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푸코가 근대 자유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 권력의 개념을 도입했고, 생명 권력의 목적이 자본주의 산업 역군인 인구의 건강, 행복, 복지, 부를 증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새롭게 조명한다(Dean, 2010). 이 같은 측면에서 이들은

6) 복수의 인간-동물 생명정치(multiple biopolitics)에 대한 연구로는 Hodgetts(2016), Srinivasan(2013) 등이 있다.

생명정치가 “긍정적 생명정치(affirmative biopolitics)”로, 다시 말해, 이질적 연결망에 결합된 인간 및 비인간 구성원들을 ‘살리는’ 정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의 생태와 잠재적 가능성이 발현되고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태관광은 자연을 ‘죽여서’(포경 등) 이용하던 ‘죽임의 생명정치’에서, 자연을 ‘살려서’(고래 관찰 관광 등) 이용하는 ‘살림의 생명정치’로 인간-동물 생명 정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hoi, 2016b).

4. 동물지리학의 주요 쟁점과 새로운 기회들

지난 20여 년간 동물지리학은 연구 대상 동물의 범위, 동물의 존재론적 논란(종 vs. 개체, 종 vs. 과정 등), 비인간 사물과 동물의 차이 등 다양한 쟁점을 통해 이론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절은 여러 쟁점 가운데 방법론, 동물 윤리, 생명 자본으로서의 동물, 동물의 지리의 네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이 절에서 논의하는 개입의 지점들은 동아시아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관련돼 있다. 흔히 ‘국가 주도형’ ‘압축적’으로 요약되는 근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국가 시절 형성된 습관과 제도적 유산,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공존과 경합,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 등의 특징적 요소를 갖게 됐다(Chang, 2010). 한국의 맥락 의존적 특징들은 인간-동물 관계를 포함한 사회 현상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실천을 고유한 형태로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근대 경험은 서구와 비견해 특수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적으로는 일정 정도 보편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국 동물지리학 연구는 동아시아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특수한 경험이 인간-동물 관계에 반영되고 인간-동물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물지리학의 인간-동물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 북미, 구 유럽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영미 동물지리학 연구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 동물 연구 방법

동물을 행위자로 보는 동물지리학의 관점은 인간-동물 관계를 이해하는 데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인식론적 한계가 있다.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의 행위성과 의도를 파악하고, 왜곡을 최소화 해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적 실험들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동물이 인간의 주된 인식론적 도구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몸으로 경험하는 삶(embodied life)’을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간과 동물 개체의 몸을 통해 흐르는 ‘감응’에서 방법론적 가능성을 찾는다. 정동, 또는 변용으로도 번역되는 감응(affect)은 “몸과 몸을 연계시키는 능력”(Anderson, 2009: 78)으로 특정한 감정, 기분, 소름과 같은 신체 반응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드러난다(Thrift, 2007).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물질적 교환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가 발생하고 공유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동물의 삶의 경험에 접근하고자 한다.

불러(Buller, 2015)는 이 같은 방법론적 실험들을 종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트랜스-스피시스 방법론(trans-species methodology)”라고 통칭하는데, 이는 최근 인류학에서 타자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멀티-스피시스 문화기술지(multi-species ethnography)’(Kirksey and Helmreich, 2010; Kirksey, 2014)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랜스 혹은 멀티 스피시스 방법

론은 동물의 습성, 감정, 사회성 등에 대한 동물행동학적 이해와, 신체적 경험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이해를 결합시킨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 관찰, 인터뷰, 텍스트 분석 등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현장 및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언어로는 환원하기 어려운 격렬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한다(Vannini, 2015). 예를 들어, 특정 동물과 오랜 기간 신체적 상호 작용을 해 온 자연 과학자, 아마추어 동물 연구가의 실험실을 방문하거나 현장 연구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획득한 동물에 대한 지식, 감정, 느낌을 공유하고, 나아가 동물과의 대면에서 연구자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Lorimer, 2008). 특히 공장식 축산이나 가축 전염병 발병지처럼 논쟁적인 현장, 반려동물처럼 장기간에 걸친 반복을 통해 인간-동물의 신체적 교환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현장이 이 같은 에너지를 포착하고 공감하는 데 유용하다(Buller, 2015).

로리어(Laurier, 2014) 등은 감응적 교환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영상, 즉 사진이나 동영상이 갖는 방법론적 유용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영상이 환기하는 느낌, 분위기, 신체적 반응 등에 주목해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인간-동물 관계의 비재현적 차원에 접근하고자 한다(Lorimer, 2010b). 또, 동물을 다룬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도, 텍스트의 정치적·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기분과 감정, 이를 읽는 연구자의 몸의 반응 (소리, 긴장, 초조함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한다(Lorimer and Whatmore, 2009). 예를 들어, 헤이든 로리머(Lorimer, 2006)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경관 연구에서, 순록에 대한 동물행동학적 지식, 목동들의 자전적 기록, 목축과 관련된 역사적 문헌, 참여 관찰, 자신의 걷기 경험 등을 교차적으로 활용해 인간-순록 관계의 비재현적 측면을 탐색하고, 목동과 순록이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춰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이랜드의 경관을 함께 형성해 왔다고 분석한다.

한편, 호제츠와 로리머(Hodgetts and Lorimer, 2015)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동물을 현장 연구의 동반자로 활용해 본다. 호제츠는 잉글랜드 중부 다람쥐 현장 연구에 자신의 반려견을 동반하고, 개의 시선과 냄새에 대한 감각, 개가 숲의 공간을 인지하는 방법, 개와 다람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처럼 그는 개의 관점에서 접근한 다람쥐의 삶의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인간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확장, 심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트랜스, 혹은 멀티 스페이스 연구 방법은 인간과 신체적 교류가 가능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동물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곤충, 바이러스, 세균 등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동물의 삶의 경험을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동물 윤리

인간-동물 관계의 윤리적 측면은 동물지리학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Lynn, 1998; Buller, 2016b). 그런데 동물지리학에서 모색하는 동물 윤리는 현실 동물 해방 운동과 철학적, 실천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⁷⁾ 동물 해방 운동은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싱어, 2012),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라는 차원에서(Regan, 2004)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본다. 즉,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커뮤니티'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장하는 것이다. 윤리적 실천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7) 동물 해방 운동에 기반을 둔 '비판적 동물 연구(Critical Animal Study)'는 동물지리학 등 주류 인간-동물 관계 연구가 이론적 발전에 치우치는 엘리트주의 경향을 갖고 있으며, 현실 동물의 고통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 실험이나 동물 산업에 영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Best, 2009; Twine, 2010).

규제하는 윤리적 원칙, 행동 수칙 등을 통해 수행된다.

한편 동물지리학자들은 애초부터 인간과 동물이 공동세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하나의 커뮤니티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 이들은 한 종이 다른 종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감응적인(affective)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동물의 윤리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uller, 2016b). 특히 이들은 현실의 인간-동물 관계가 종과 종의 보편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별 동물의 특수화된 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윤리적 실천은 보편적 원칙이나 방침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관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형태로 생성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과 동물의 개별화되고 신체적인 관계를 통해 윤리적 고려가 발생한다는 이 같은 입장을 와트모어(Whatmore, 2002)는 “관계적 윤리(relational ethics)”로 개념화한다.

미국 과학철학자 해러웨이(Haraway, 2008)의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은 관계적 윤리를 설명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해러웨이는 자신과 반려견의 관계를 다룬 『웬 스피시즈 미트(When Species Meet)』에서 동물이 우리를 응시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응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강조한다. 그는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온 인간과 동물의 역사를 감안하면서, 동물권이나 동물해방처럼 인간의 동물 지배와 통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대신 윤리가 개별 인간과 개별 동물의 신체적, 일상적이면서도 헌신적인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계적 성취물(relational achievement)’임을 강조한다. 즉, 몸으로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바꿔 나가는 관계 속에서 윤리적 고려가 생성되고 실천된다는 것이다. 해러웨이에게 윤리적 실천은 행동 수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가 아니라, 동물의 요구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을 계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수행된다.

예컨대, 실험실의 과학자들은 당초 실험동물을 객관적 연구 대상으

로 여기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과학자들은 실험동물에게 교감하게 되고, 실험동물을 감정과 삶이 있는 개체로 여기게 된다(Candea, 2010; Greenhough and Roe, 2011). 이 때 실험동물의 고통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shared suffering), 시선에 응답하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관계적 윤리의 실천이 된다. 데이비스(Davies, 2012)는 이런 측면에서 “탐색적 생명윤리(speculative bioethics)”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하는 것을 윤리적 실천으로 본다. 이는 실험동물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고안하고 준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동물 관계의 윤리적 측면을 탐색하게 한다.

해러웨이의 영향을 받은 동물지리학자들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감수성을 확장해, 인간-동물의 윤리적·정치적 관계가 인간과 ‘유사’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데서 벗어나, 인간과 ‘다른’ 동물의 특성이 발현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inchliffe et al., 2005; Lorimer and Driessen, 2013; Van Dooren, 2014). 즉, 인간과 구별되는 동물의 생태, 영역, 잠재적 가능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정치적, 생태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동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과 동물이 함께 더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지리학자들은 보다 민주적이고, 친밀하고, 발랄한 인간-동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companionship”(Lorimer, 2010a), “nonhuman friendship”(Bingham, 2006) “conviviality”(Hinchliffe and Whatmore, 2006) 같은 개념들을 개발해 왔다.

관계적 윤리와 다양한 종들의 번성(multispecies flourishing)의 지향은 국내 도심 동물 관리의 목표와 방식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도시에 출몰하는 쥐, 까치, 멧돼지, 들개 등의 떠돌이 동물(feral animals)은 공중 보건을 위협 요인으로 규정되고 제거돼 왔다. 1970년대 ‘쥐잡기 운동’에서 보듯, 권위주의 정부의 도심 동물 관리는 유해 동물의 박멸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동원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

다. 그러나 최근 ‘쥐들의 귀환’이나, 북한산 인근 ‘들개’의 출현, 멧돼지의 계속되는 출몰 등에서 보듯 도심 동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 동물을 도시의 “귀한 이웃”(Wolch, 1998)으로 여기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여지를 마련해 주자는 관계적 윤리는 도심 동물 관리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길고양이 정책은 도심 동물 관리의 목표와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의령, 2017; 이종찬, 2015). 서울시는 중성화 수술(TNR), 급식소 설치, 캣맘 지원 등을 통해 길고양이를 “도시의 정당한 정주자”(전의령, 2017)로 새롭게 규정하고, 길고양이와 주민과의 ‘공존’의 방법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가 캣맘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 주도형 동물 관리와 최근의 민간 참여형 거버넌스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권위주의 정부의 제도적 유산이 새로운 제도와 결합하거나 긴장, 상충하는 지점은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인간-동물 거버넌스, 나아가 인간-동물 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의령(2017)의 길고양이 연구는 ‘공생’의 생명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층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의령은 최근의 길고양이 보호 담론과 전략이 과거 ‘도둑’ 고양이 퇴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도심 인간-동물 관계를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동물보호법, 서울시, 캣맘 등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길고양이를 정의하고 생명정치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 TNR 등이 길고양이에게 도시 정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생의 영속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공생의 생명정치가 또 다른 정치적 문제들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3) 동물 자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물은 새로운 방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자본(biocapital)”(Rajan, 2006)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기와 가죽, 부산물은 물론, 유전자, 생태, 이미지, 직간접적 대면 등이 자본의 한 형태가 돼, 반려동물 산업, 생명공학, 영상 산업, 관광 사업, 보전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슈킨(Shukin, 2009)의 캐나다 사례 연구처럼, 현대 자본주의는 자동차 산업, 영화, 휴대전화 광고에서 광우병과 조류 독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동물 담론, 지식, 실천을 재배열해 동물을 “살아있는 자본(lively capital)”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콜라드와 뎀프시(Collard and Dempsey, 2013)는 지난 10여 년간 ‘자연의 신자유주의화’(Castree, 2008a; 2008b)가 활발히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같은 살아있는 자본의 생산 방식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내·종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콜라드(Collard, 2013)는 지구적 스케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국적 애완동물(열대 앵무, 파충류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추적하고, 이국적 반려동물 산업의 확장이 동물 및 제3세계 생산자 착취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비슷한 맥락에서, 더피(Duffy, 2014) 등은 인간-동물의 직접 대면을 상품화하는 생태관광이 보전에 기여한다는 명목과 달리, 관광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행동을 교란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Duffy and Moore, 2010; Neves, 2010).

최근 동물지리학자들은 인간 너머 지리학의 감응 연구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동물을 이용한 감응적 정치경제(affective political economy)의 작동 방식과 효과를 탐색한다. 특히 해러웨이(Haraway, 2008)의 “대면 가치(encounter value)” 개념은 인간-동물 관계의 정서적·감정적 측면이 자본주의 상품으로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해러웨이는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자원(고기, 새

포, 유전자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이어, 동물과의 직간접적 대면을 통해 발생하는 ‘대면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정한 방식으로 가공된 동물 이미지, 영상,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동물과 맞닥뜨림으로써 인간은 감동, 기쁨, 호기심,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같은 인간-동물 대면을 상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대면가치를 통한 새로운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루아(Barua, 2016)는 특히 국제 자연 보전 단체의 기금 모금 활동에 대면 가치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면 가치 개념은 기금 활동뿐 아니라 생태관광, 동물원, 수족관, 자연사 다큐멘터리 영상 산업 등 동물과 인간과의 직간접적 만남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분석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응적 정치경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다각화하고 심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적·지역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감응과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는 동물지리학, 나아가 인간 너머 지리학의 감응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 반려동물 산업에서 종종 활용되는 ‘귀여움’의 감응적 정치경제 분석이 가능하다. 몸집이 작은 애완동물에 대한 선호, 반려동물에게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달아 치장하는 행위, 아이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는 동물 캐릭터 등 귀여움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많은 영역에서 핵심 테마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귀여움에 대한 집착은 한국뿐 아니라 ‘헬로 키티’ 등에서 보듯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일정 정도 공유되는 현상이기도 하다(Ko, 2003; McVeigh, 2000). 소비자가 귀엽게 가공된 동물 이미지와 영상을 대면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담론적·물질적 장치들이 귀여움의 감응을 조직하는 데 활용되는 지 등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 동물을 귀여운 존재,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재현하는 행위의 정치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및 동아시아의 인간

-동물 관계가 노정하고 있는 종간 불평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물의 지리

최근 동물지리학에서 활용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 관계적 공간 논의(매시, 2016; 최병두, 2015) 등은 동물의 지리(animals' geographies)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동물을 생물학적 존재로만 여길 경우, 동물의 지리적 관계는 사육장, 동물원, '야생' 등의 고정된 장소로 한정된다. 한편,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적용해 동물의 존재를 해당 동물이 결합된 기술, 제도, 담론 등 이질적 연결망의 효과로 볼 경우, 동물의 지리적 공간은 동물이 거주하는 고정된 장소를 벗어나 해당 동물을 둘러싼 정치적·과학적·정책적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장소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멀리 떨어진 곳의 인력, 지식, 제도, 기술 등이 접혀진 시공간을 건너 특정 장소에서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와트모어와 손(Whatmore and Thorne, 1998)은 이 같은 위상학적 접근을 통해 야생동물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이를 존재론적 논의와 결합시킨다. 이들은 고대 로마 야외극장에서 검투사와 대결하던 표범을 소재로, 표범의 공간을 야외극장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신 표범이 포획된 북아프리카 초원 지역, 표범을 신고 온 배, 표범이 훈련 받은 로마 제국 외곽의 훈련장 등 표범이 복수(multi)의 장소에서 복수의 인간, 장치, 환경과 신체적 경험을 주고 받았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야외극장의 표범은, 야생 초원의 표범과 물질적으로도 담론적으로도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와트모어와 손은 동물을 인간, 장치, 문헌, 장소 등으로 구성된 이질적 연결망 속에 위치시키고, 표범의 공간을 복수의 장소로 확장하면서, 지리적 관계망의 수행을 통해 표범의 존재론적 위치가 새롭게 만

들어짐을 강조한다. 바루아(Barua, 2013)는 와트모어와 손의 위상학적 동물 논의를 인도코끼리에 적용하고, 인도 남부의 서식지뿐 아니라 미국 보스턴,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런던 등 복수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코끼리 보전 활동을 통해 인도코끼리가 ‘보전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같은 측면에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 역시 담론, 제도, 기술의 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코스모폴리탄”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동물의 지리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개고기 논란, 길고양이 돌봄 혐오, 고래 고기 섭취 논란 등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분쟁을 탐색하는데 새로운 지리적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고기 논란과 같은 분쟁은 종종 개고기를 ‘전통 문화’로 보는 관점과 ‘동물 학대’로 보는 관점처럼 상충하는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이 같은 상이한 가치의 경합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시공간의 압축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한국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가 공존하게 되면서 특정 사안에 집적되고 경합하는 것이다(Chang, 2010). 근대화의 공간적 궤적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각화된(multi-lateral) 지리적 관계를 경험해 왔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식민지 경험, 지리적 근접성 등을 통해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서구 국가들로 지리적 연결망을 넓혀온 것이다. 이 같은 다각화된 지리적 연결망은 서구와 비 서구 식민지 지역(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쌍방(bi-lateral) 지리적 연결망에 비해 복잡하고 다채롭다. 동물의 지리에 대한 관심은 개고기와 같은 인간-동물 분쟁을 지역적으로 특수한 문화적 논란으로 환원하는 대신, 이를 역사적·정치적으로 형성된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즉, 지리적 연결망에 기입된 제도, 장치, 기술 등이 동물 담론과 실천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동물 분쟁에 대한 지리적 분석의 예로, 최명애(Choi, 2017)는 울

산 장생포의 고래 관광과 고래 고기 섭취의 공존을 한국, 일본, 서구의 공간 권력의 작동으로 형성된 “힘의 기하학(power geometry)” (Massey, 1994)으로 설명한다. 그는 한국의 포경 및 고래 섭취와 관련된 인력, 지식, 제도, 담론 등이 식민지 관계 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고래 보호 및 고래 관광과 관련된 담론적·물질적 장치들이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장생포의 인간-고래 관계의 공간이 울산을 넘어 일본 도쿄, 돌고래 포획지로 유명한 와카야마 현 타이지, 미국 워싱턴, 뉴베드포드, 호주 호바트, 스위스 글랑, 영국 케임브리지 등 복수의 장소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포경과 서구의 반포경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간 권력의 기하학이 한국으로 하여금 포경과 고래 관광 어느 한 쪽으로도 수렴되지 않고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고기로 판매, 유통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의 제도화를 통해 두 상충하는 행위를 공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5. 결론

이 논문은 영미 동물지리학의 주요 논의와 쟁점을 소개하고,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문헌 리뷰 연구다. 필자는 먼저 인문지리학의 인간-동물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영미 문화·환경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출현해, 인간 너머 지리학의 이론적·경험적 프론티어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영미 동물지리학에서 발전시킨 주요 이론적 접근법을 설명하고, 대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동물지리학 연구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한국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했다. 필자는 특히 동아시아 후기 발전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이 한국의 인간-동물 담론과 실천을 고유

한 형태로 창출한다는 데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미 중심 동물지리학의 인간-동물 이해를 확장·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인문지리학 연구의 지평을 인간-동물 관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이 논문의 결론으로, 필자는 동물지리학 연구가 국내 인문지리학 연구에 갖는 함의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동물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성과 작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구 창구(window), 혹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에 대한 연구는 결국 '인간' 사회에 대한 연구다. 동물의 정체성은 사회와 독립돼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식민주의, 국가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재규정된다. 따라서 동물이 규정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박멸의 대상이던 도심 동물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최근의 변화는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역사적 전환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우리 사회가 비인간 및 인간 생명을 보는 관점과 방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길고양이 돌봄, 길고양이 협오와 같은 인간-동물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동물 문제 연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인간-동물 연구는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및 자연과학의 통합학문적(interdisciplinary)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분야다. 4절에서 언급했듯이, 동물의 행위성에 대한 연구는 인간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해 온 지리 연구 방법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동물의 생태, 습성, 행동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동물행동학, 생물학, 자연지리학적 전문 지식, 기술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들개'와 같은 도심 동물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전통적 인문지리 방법론인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조사하고, 자연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동물의 배설물, 흔적 등을 관찰함으

로써 동물 서식지의 변화를 파악하고, 동물행동학적 지식을 통해 변화하는 동물의 생태와 행동을 추적, 기록할 수 있다. 이 같은 통합학문적 방법론을 활용할 때 인간-들개 관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 연구는 인문지리학의 혁신을 도모하고, 자연지리학과 통합 학문 분야로 “살아있는 생물지리학(lively biogeographics)”(Lorimer, 2010a)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고접수일: 2018년 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9일

최종원고접수일: 2018년 3월 13일

❖ Abstract

Animal Geographies for More-Than-Human Geographies in and of Korea

Choi, Myung Ae

Animals have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part of South Korean social and political life. The number of pets has rapidly increased, whil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series of animal welfare and biosecurity policies. However, unlike “the animal turn” of the society, the Korean geographical scholarship has so far remained uninterested in human-animal relations. Such silence on animals provides a stark contrast to Anglophone geographies within which animal geograph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ub-discipline of human geography. As a way of addressing the animal gap in Korean human geography, this paper discusses key concepts and seminal work of animal geographies. It first outlines the disciplinary development of animal geographie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t then reviews key approaches to human-animal relations: animals as social construction and production; relational approaches; and more-than-human biopolitics. Then it considers four selected themes in recent studies of animal geographies, paying particular reference to South Korean animal controversies. These themes are related to methods, ethics, political economy and animals’ geographies.

Keywords: animal geographies, more-than-human geography, biopolitics, nature-society relations, animal welfare

참고문헌

- 고든, 콜린(Colin Gordon) 외.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옮김. 난장.
- 김동진. 2013. 『17세기 호속목제 시행의 생태경제사적 요인』. 《역사와 현실》, 90권, 29~70쪽.
- 김명식. 2013.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환경철학》, 15권 0호, 1~30쪽.
- 김민정. (2012). 『물질대사 균열 관점에서 본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가족의 사육과 질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8~39쪽.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권 4호, 461~477쪽.
- _____.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권 3호, 311~326쪽.
- 김이름·이제민·장갑수. 2017. 『제주 노루(Capreolus pygargus)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권 4호, 139~151쪽.
- 김환석. 2017.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112권, 208~231쪽.
- 매시, 도린(Doreen Massey). 2016. 『공간을 위하여』.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옮김. 심산.
- 박준규·김민규. 2011. 『GIS에 의한 3차원 동물서식도 제작』.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4권 4호, 54~62쪽.
- 박창길. 2005. 『환경철학과 환경운동: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환경철학》, 4권 0호, 29~73쪽.
- 서소정. 2014. 『대한제국기 일제의 동물원 설립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8권, 7~42쪽.
- 서울시·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7. 『동물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 산에 사는 유기견(들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토론회 자료집』.
- 싱어, 피터(Peter Singer). 2012.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 윤익준. 2016.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임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6권 1호, 37~65쪽.
- 이용숙. 2017.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권 2호, 337~403쪽.
- 이종찬. 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과 공존의 정치』.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장신욱. 2016. 『사회구성주의와 자연』. 《환경사회학연구 ECO》, 20권 2호, 133~163쪽.

- 전의령. 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3호, 3~40쪽.
- 최명애. 2016. 『한국 생태관광에 대한 녹색통치성 연구를 위한 소고』. 《공간과사회》, 26권 4호(통권 58호), 229~266쪽.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25권 3호(통권 53호), 126~173쪽.
- 크레스웰, 팀(Tim Cresswell). 2015. 『지리사상사』. 박경환·류연택·심승희·정현주·서태동 옮김. 시그마프레스.
- Agamben, G. 2004. *The open: Man and animal*.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Agrawal, A. 2005. *Environmentality: Technologies of government and the making of subject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Anderson, B. 2009.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pp. 77~81.
- Anderson, K. 1995. “Culture and nature at the Adelaide Zoo: At the frontiers of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0(3), pp. 275~294.
- Asdal, K., T. Druglitrø. and S. Hinchliffe. 2016. *Humans, animals and biopolitics: The more-than-human condition*. London: Routledge.
- Barua, M. 2013. “Circulating elephants: Unpacking the geographies of a cosmopolitan anima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4), pp. 559~573.
- _____. 2016. “Lively commodities and encounter valu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4(4), pp. 725~744.
- Bear, C. and S. Eden. 2011. “Thinking like a fish? Engaging with nonhuman difference through recreational angling.”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2), pp. 336~352.
- Beardsworth, A. and A. Bryman. 2001. “The wild animal in late modernity: The case of the Disneyization of zoos.” *Tourist Studies*, 1(1), pp. 83~104.
- Bekoff, M. 2002. *Minding animals: Awareness, emotions, and he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st, S. 2009. “The rise of critical animal studies: Putting theory into action and animal liberation into higher education.” *Journal for Critical Animal Studies*, 7(1), pp. 9~52.
- Bingham, N. 2006. “Bees, butterflies, and bacteria: Biotechnology and the politics of non-human friend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3), pp. 483~498.
- Braun, B. 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pp. 635~650.
- Buller, H. 2008. “Safe from the wolf: Biosecurity, biodiversity, and competing philosophies of natu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7), pp. 1583~1597.
- _____. 2013a. “Animal geographies 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2), pp.

- 308~318.
- _____. 2013b. “Individuation, the mass and farm animals.” *Theory, Culture & Society*, 30(7-8), pp. 155~175.
- _____. 2015. “Animal geographies II: Metho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3), pp. 374~384.
- _____. 2016a. “Animal geograph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People, the earth, environment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Ltd.
- _____. 2016b. “Animal geographies III: Eth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3), pp. 422~430.
- Calarco, M. 2008. *Zoographies: The question of the animal from Heidegger to Derrid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ndea, M. 2010. ““I fell in love with Carlos the meerkat”: Engagement and detachment in human-animal relations.” *American Ethnologist*, 37(2), pp. 241~258.
- Castree, N. 2008a.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53~173.
- _____. 2008b.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31~152.
- Castree, N. and B. Braun. 2001. *Social nature: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ang, K. 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Abingdon: Routledge.
- Choi, M. A. 2016a.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1(5), pp. 613~632.
- _____. 2016b. *Governing deceleration: The natures, times, and spaces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PhD thesis,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 _____. 2017. “The whale multiple: Spatial formations of whale tourism in Jangsaengpo, South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49(11), pp. 2536~2557.
- Christophers, B. 2006. “Visions of nature, spaces of empire: Framing natural history programming within geometries of power.” *Geoforum*, 37(6), pp. 973~985.
- Cloke, P. and H. C. Perkins. 2005. “Cetacean performance and tourism in Kaikoura, New Zea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pp. 903~924.
- Collard, R. C. 2013. “Putting animals back together, taking commodities ap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1), pp. 151~165.
- Collard, R. C. and J. Dempsey. 2013. “Life for sale? The politics of lively commod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5(11), pp. 2682~2699.

- Davies, G. 2000a. "Narrating the natural history unit: Institutional orderings and spatial strategies." *Geoforum*, 31(4), pp. 539~551.
- _____. 2000b. "Virtual animals in electronic zoos." In: C. Philo and C. Wilbert(eds.).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pp. 243~266.
- _____. 2012. "Caring for the multiple and the multitude: Assembling animal welfare and enabling ethical critiqu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4), pp. 623~638.
- _____. 2014. "Searching for GloFish®: Aesthetics, ethics, and encounters with the neon baroqu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6(11), pp. 2604~2621.
- Dean, M. 2010.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2nd edn)*. London: Sage.
- Derrida, J. 2008.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Duffy, R. 2014. "Interactive elephants: Nature, tourism and neoliberal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4, pp. 88~101.
- Duffy, R. and L. Moore. 2010. "Neoliberalising nature? Elephant-back tourism in Thailand and Botswana." *Antipode*, 42(3), pp. 742~766.
- Emel, J. 1998. "Are you man enough, big and bad enough? Wolf eradication in the US." In: J. R. Wolch and J. Emel(eds.).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New York: Verso. pp. 91~118.
- Emel, J., C. Wilbert. and J. Wolch. 2003. "Reanimating cultural geography." In: K. Anderson(ed.).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 pp. 184~206.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New York: Vintage.
- _____. 2009.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Basingtoko: Palgrave Macmillan.
- Gillespie, K. and R. C. Collard. 2015. *Critical animal geographies: Politics, intersections and hierarchies in a multispecies world*. New York: Taylor & Francis.
- Ginn, F. 2014. "Sticky lives: Slugs, detachment and more-than-human ethics in the garde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4), pp. 532~544.
- Greenhough, B. 2012. "Where species meet and mingle: Endemic human-virus relations, embodied communication and more-than-human agency at the Common Cold Unit 1946-90." *Cultural Geographies*, 19(3), pp. 281~301.
- Greenhough, B. and E. J. Roe. 2011. "Ethics, space, and somatic sensibilities: Comparing relationships between scientific researchers and their human and animal experimental subject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1), pp. 47~66.
- Hannah, M. G. 2011. "Biopower, life and left politics." *Antipode*, 43(4), pp. 1034~1055.
- Haraway, D. 2008. *When species me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inchliffe, S. 2007. *Geographies of nature: Societies, environments, ecologies*. London: Sage.
- Hinchliffe, S. and N. Bingham. 2008. “Securing life: The emerging practices of biosecur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7), pp. 1534~1551.
- Hinchliffe, S., M. B. Kearnes., M. Degen. and S. Whatmore. 2005. “Urban wild things: A cosmopolitical experi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5), pp. 643~658.
- Hinchliffe, S. and S. Whatmore. 2006. “Living cities: Towards a politics of conviviality.” *Science as Culture*, 15(2), pp. 123~138.
- Hobson, K. 2007. “Political animals? On animals as subjects in an enlarged political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26(3), pp. 250~267.
- Hodgetts, T. 2016. “Wildlife conservation, multiple biopolitics and animal subjectification: Three mammals’ tales.” *Geoforum*, 79, pp. 17~25.
- Hodgetts, T. and J. Lorimer. 2015. “Methodologies for animals’ geographies: Cultures, communication and genomics.” *Cultural Geographies*, 22(2), pp. 285~295.
- Holloway, L., C. Morris., B. Gilna. and D. Gibbs. 2009. “Biopower, genetics and livestock breeding: (Re)constituting animal populations and heterogeneous biosocial collectivit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4(3), pp. 394~407.
- Hovorka, A. 2008. “Transspecies urban theory: Chickens in an African city.” *Cultural Geographies*, 15(1), pp. 95~117.
- Kirksey, E. 2014. *The Multispecies sal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irksey, S. and S. Helmreich. 2010. “The emergence of multispecies ethnography.” *Cultural Anthropology*, 25(4), pp. 545~576.
- Ko, Y. -F. 2003. “Consuming differences: ‘Hello Kitty’ and the identity crisis in Taiwan.” *Postcolonial Studies: Culture, Politics, Economy*, 6(2), pp. 175~189.
- Laurier, E. 2014. “Dissolving the dog: the home made video.” *Cultural Geographies*, 21(4), pp. 627~638.
- Latour, B. 2004. *Politics of na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mke, T. 2011.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orimer, H. 2006. “Herding memories of humans and animal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4), pp. 497~518.
- Lorimer, J. 2007. “Nonhuman charism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5), pp. 911~932.
- _____. 2008. “Counting corncrakes: The affective science of the UK corncrake census.” *Social Studies of Science*, 38(3), pp. 377~405.
- _____. 2010a. “Elephants as companion species: The lively biogeographies of Asian ele-

- phant conservation in Sri Lank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4), pp. 491~506.
- _____. 2010b. “Moving image methodologies for more-than-human geographies.” *Cultural Geographies*, 17(2), pp. 237~258.
- _____. 2012. “Multinatural geographies for the Anthropocen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5), pp. 593~612.
- _____. 2015. *Wildlife in the Anthropocene: Conservation after n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17. “Parasites, ghosts and mutualists: A relational geography of microbes for global healt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2(4), pp. 544~558.
- Lorimer, J. and C. Driessen. 2013. “Bovine biopolitics and the promise of monsters in the rewilding of Heck cattle.” *Geoforum*, 48, pp. 249~259.
- Lorimer, J. and T. Hodgetts. 2016. “Biogeograph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People, the earth, environment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Ltd.
- Lorimer, J. and K. Srinivasan. 2013. “Animal geographies.” In: N. Johnson, R. Schein and J. Winders(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Oxford: Wiley. pp. 332~342.
- Lorimer, J. and S. Whatmore. 2009. “After the ‘king of beasts’: Samuel Baker and the embodied historical geographies of elephant hunting in mid-nineteenth-century Ceylo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5(4), pp. 668~689.
- Luke, T. 1999. “Environmentality as green governmentality.” In: É. Darier(ed.). *Discourses of the environment*. Oxford: Blackwell. pp. 121~151.
- Lulka, D. 2004. “Stabilizing the herd: Fixing the identity of nonhuma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3), pp. 439~463.
- Mansfield, B. 2003. “From catfish to organic fish: Making distinctions about nature as cultural economic practice.” *Geoforum*, 34(3), pp. 329~342.
- _____. 2006. “Assessing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using a case study of North Pacific fisheri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1), pp. 29~39.
- Massey, D. B. 1994. “A global sense of place.”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pp. 146~156.
- McVeigh, B. J. 2000. “How Hello Kitty commodifies the cute, cool and camp: ‘Consumutopia’ versus ‘Control’ in Japan.” *Journal of Material Culture*, 5(2), pp. 225~245.
- Nam, J. Y. 2014. *Free Jedol: The biopolitics of captive dolphin release in South Korea*. MSc dissertation, School of Geographical Science, University of Bristol.

- Neves, K. 2010. “Cashing in on cetourism: A critical ecological engagement with dominant e-NGO discourses on whaling, cetacean conservation, and whale watching.” *Antipode*, 42(3), pp. 719~741.
- Philo, C. and C. Wilbert. 2000a.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Oxfor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0b. “Introduction.” In: C. Philo and C. Wilbert(eds.).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Oxford; New York: Routledge. pp. 1~36.
- Philo, C. and J. Wolch. 1998. “Through the geographical looking glass: Space, place, and society-animal relations.” *Society and Animals*, 6(2), pp. 103~118.
- Rabinow, P. and N. Rose. 2006. “Biopower today.” *BioSocieties*, 1(2), pp. 195~217.
- Rajan, K. S. 2006. *Biocapital: The constitution of postgenomic lif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Regan, T. 2004.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 N. 2007.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P. and S. Rutherford. 2013a. “The confusions and exuberances of biopolitics.” *Geography Compass*, 7(6), pp. 412~422.
- Rutherford, S. and P. Rutherford. 2013b. “Geography and biopolitics.” *Geography Compass*, 7(6), pp. 423~434.
- Rutherford, S. 2007. “Green governmentality: Insights and opportunities in the study of nature’s ru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3), pp. 291~307.
- _____. 2011. *Governing the wild: Ecotours of pow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13. “The biopolitical animal in Canadian and environmental studies.” *Journal of Canadian Studies/Revue Desudes Canadiennes*, 47(3), pp. 123~144.
- Shukin, N. 2009. *Animal capital: Rendering life in biopolitical tim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rinivasan, K. 2013. “The biopolitics of animal being and welfare: Dog control and care in the UK and Indi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8(1), pp. 106~119.
- Stengers, I., B. Braun. and S. J. Whatmore. 2010. “Including nonhumans in political theory: Opening the Pandora’s Box?” In: B. Braun and S. Whatmore(eds.). *Political matter: Technoscience, democracy, and public lif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pp. 3~33.
- Tatar, B. 2017. “Place-making, landscape and materialities: whales and social practices

- in Ulsan, Ko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50(2), pp. 405~446.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Abingdon: Routledge.
- Twine, R. 2010. *Animals as biotechnology: Ethics, sustainability and critical animal studies*. London: Routledge.
- Urbanik, J. 2012. *Placing animals: An introduction to the geography of human-animal relations*. Lanham; Rowman & Littlefield.
- Urbanik, J. and M. Morgan. 2013. “A tale of tails: The place of dog parks in the urban imaginary.” *Geoforum*, 44, pp. 292~302.
- Van Dooren, T. 2014. *Flight ways: Life and loss at the edge of extin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nnini, P. 2015. *Non-representational methodologies: Re-envisioning research*. London: Routledge.
- Whatmore, S. 2002. *Hybrid geographies: Natures cultures spaces*. London: Sage.
- _____.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4), pp. 600~609.
- Whatmore, S. and L. Thorne. 1998. “Wild(er)ness: Reconfiguring the geographies of wildlif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3(4), pp. 435~454.
- Wheeler, W. and L. Williams. 2012. “The animals turn.” *New Formations*, 76, pp. 5~7.
- Wolch, J. and J. Emel. 1995. “Bringing the animals back i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3(6), pp. 632~636.
- Wolch, J. R. 1998. “Zoopolis.” In: J. R. Wolch and J. Emel(eds.).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New York: Verso. pp. 119~138.
- Wolch, J. R. and J. Emel. 1998.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New York: Verso.

<기사>

- 남종영. 2017.7.3. “‘북한산 들개’의 탄생 ... 개들은 왜 산으로 갔을까”. 《한겨레》.
- 신호경. 2017.2.19. “한국인 5명 중 1명 반려동물 기른다 ... 문화와 산업 됐다”. 《연합뉴스》.
- 최우리. 2017.4.17.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 대선공약 오른 동물복지”. 《한겨레》.